



2016년 세 번째 호 (통권 16호)

별마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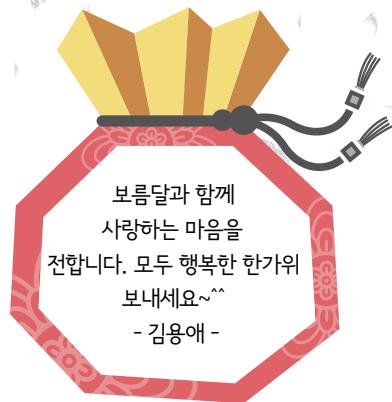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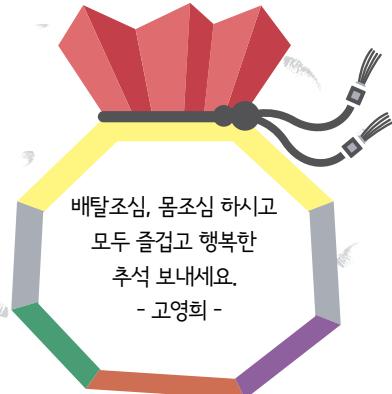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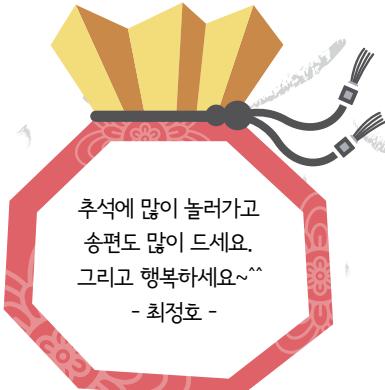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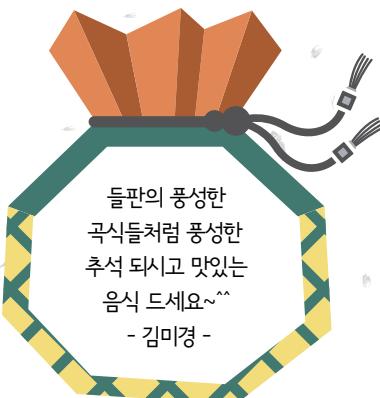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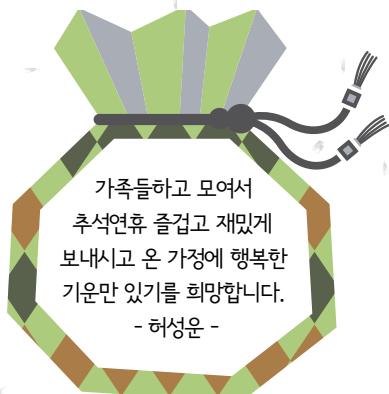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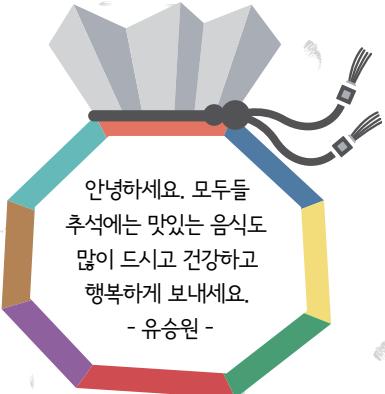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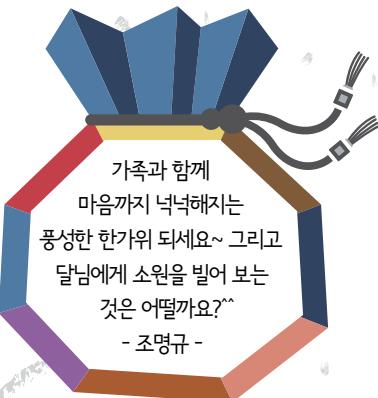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성촌의집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가치 있는 삶을 돋고 있습니다.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희망의 징검다리



징검다리

▶ 개울이나 물이 막힌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꿈, 희망, 소망, 목표 등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다보면 편하게 평지만 걷고 싶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 이 편하게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개울 건너편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거나... 힘들지만 개울을 헤엄쳐 건너 원하는 것을 얻으시겠습니까?

성촌의집에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시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희망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생활에 익숙해진 분들에게 자립하기 전 모의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부분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자립을 희망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 체험홈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라고...

그렇다고 모든 가족분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징검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지거나 중간에 힘이 들어 개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가족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믿으며... 원하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늦을 수는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일이 때론 힘들고 더딜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의 징검다리를 건너보심이 어떨지요? 파이팅!!^^

그리고 성촌의집 가족들이 지역사회로의 자립,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추억을 만들고 싶은 자 여행을 떠나라!!



- ▶ 새로 개통 된 인천 2호선은 전철이 이동하는 경로를 유리창으로 볼 수 있어 마치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겸암역으로 고고씽!!
- ▶ 짠! 신경주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불국사를 방문 했지요~ 다양한 포즈로 사진도 찍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찰칵! 찰칵! ㅎㅎ
- ▶ 와우~ 안압지 직접 와보니 길도 좋고 야경도 좋고~사람들도 많아요. 다시 한 번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 ▶ 식사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낙지덮밥을 먹네요!! ㅎㅎ 이게 바로 여행의 별미 아니겠습니까? ㅋㅋ
- ▶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목욕을 하니 뽀송뽀송~^^
- ▶ 경주에서의 다음 날 아침이 밝았네요~ 빨리 산책을 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광경을 보고 왔어요 ㅎ
- ▶ 또, 우리는 경주테디베어 박물관으로~~슝~
- ▶ 이곳은 공룡과 곰이 서로 엉겨있어요~ 공룡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도망가세요!!!! ㅋㅋ
- ▶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경주여행은 끝이 났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아 기분도 좋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네요~^^



THE 사랑 THE 나눔 바자회

함께하는 꽃밭길 행복공동체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에서는 「**방언 65주년 맞이 산하시설 자립환경교축**」 기금

마련을 위한 "THE 사랑, THE 나눔" 바자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쁜시대에도 창작한시이며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직원 일동 드립-

주 최 |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주 관 | 성촌의집, 우리들의집, 굿프랜드

일 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전 11시 ~ 오후 8시

장 소 | 성촌재단 마당

행사내용 | 먹거리(아채해물전, 잔치국수, 훈제치킨, 도토리묵무침, 골뱅이소면, 떡볶이, 김밥, 토스트, 과일세트, 생과일쥬스, 주류 등) 의류/잡화

생활용품(도서, 그릇, 비누, 삼푸, 담요, 음악CD 등) 판매

연락처 | 성촌의집(☎422-0573), 우리들의집(☎433-7907), 굿프랜드(☎428-1741)

교통편 | 국철 - 동암역 1번 출구(남광장)

인천지하철 - 간석오거리역 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 3번 출구(동암초등학교방면)

계좌번호 | 신협 131-002-032837(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산하 3개의 기관(성촌의집, 우리들의집, 굿프랜드)이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금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촌의집을 찾아주시고 함께 활동했던 자원봉사자, 후원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박하지만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판매 코너를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티켓을 구매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잔치에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먹거리 및 판매물품)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들도 많이 많이 연락주세요.

◆ 티켓 구매 문의 :

행정지원팀장 이미복 ☎ 032-422-0573

별마을 우체통

우리는 별마을 새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직원 권소진입니다. 입사한지 벌써 반년 째예요. 시간 참 빠르죠?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생각하다보면 웃음이 나와요. 맛있는 게 생기면 먼저 챙겨주시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넓은 마음으로 웃어 넘겨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미있게 일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권소진 사회복지사

신입 사회복지사로 시작한지 5개월 남짓, 서툴고 부족한 신입이다 보니 우리 마음 따뜻한 성촌 가족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로서 처음보다 조금은 나아진 지금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회복지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앞으로 부족한 점을 더 채워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지현 사회복지사



60th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2016년 8월 11일에 성촌의집에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자이신 김학례님과 허성운님이 올해 만60세가 되셔서 환갑을 맞이하셨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촌의집에서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두 분의 환갑을 축하하며 생일축하노래도 부르고 다함께 어울려 선물도 나누고~ 여흥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웃자지껄한 크고 작은 웃음소리까지...

성촌의집 구성원들이 서로를 ‘OO가족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성촌의집 가족’이라는 의미로 환갑잔치를 준비하고 또 함께하면서 가슴뭉클하고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이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두분의 환갑잔치를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교촌F&B, 한장협, 세모한복에 감사드립니다.



성촌의집 홈페이지 새롭게 탄생

성촌의집 가족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ungchon.or.kr>



별마을그림일기



나의 생일에 성촌의집에서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이 도움을 주었다. 언니들과 동생들이 축하해 주어서 참 즐거웠고 감사했다. 특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서 참 좋았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싶다. 그러면 모두 즐거워겠지? 앞으로는 나도 언니들과 동생들의 생일을 축하해주어야겠다. 모두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7월에 언니들과 동생들하고 함께 회의를 하였다. 우리는 신발에서 냄새가 나 신발을 깨끗이 빨기로 결정했다. 집에서는 해 본적이 없어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다! 신발을 빼는 것을 어려워하는 언니들을 도와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 집에 가면 엄마 신발도 빨아줘야지~



오늘은 기대하고 있던 그날... 바로 말을 타러 가는 날이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높이가 꽤 높아서 온몸이 덜덜 떨렸는데 여러 번 타니 말과도 친해진 느낌도 들고 이제는 즐겁게 탈 수 있다. 오늘도 지난번에 함께 했던 갈색말이 와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니 꼬리를 탁탁 치는 것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다. 오늘도 즐거운 승마를 시작한다. 야호~



오늘은 내가 응원하는 프로야구팀의 경기가 있어 문학경기장에서 관람했다.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응원열기가 뜨겁던지 그 분위기에 훨씬들려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했었는데 마지막에 4:3으로 응원한 팀이 이겨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런 기분 너무 신나고 좋은 것 같다. 다음에 경기가 또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가봐야겠다.

별군이 하루



진정한
배려



그림[유성우 (소식지편찬위원회)]



장
한
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나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별

마을(성촌의집)

사회복지사

별마을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은 직원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문득,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 주민들에게 성촌의집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까?
-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걸까?
-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걸맞은 걸까?

알고 계신가요? 별마을 직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등 다양한 직업들이 모여 있답니다.

그 중에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별마을 가족들에게 '**사회복지사**' 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회복지사는 별마을 가족들의 역량과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즉, 별마을 가족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가족을 위해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만 생각해내는데 힘썼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장애물을 만나고 고민했던 부분과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민에 가족들이 없었다는 것... 문제해결에 있어 당사자인 가족의 힘이 제일 큰 자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고민할 때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골라 주는 것이 아닌 가족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
- 내(사회복지사, 직원)가 아닌 당사자(별마을 가족) 스스로가 하는 것이기에 가족이 주체가 되는 것
- 마음을 나누어 가족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정말 원하는 것 이 무엇일까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
-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고민하는 것

이로써 별마을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그림이 가족만의 색깔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복지(福祉)는 '행복한 삶'을 뜻합니다.

별마을 가족이 고단한 훌로서기가 되지 않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지지하는

우리는 별마을(성촌의집) 사회복지사입니다.

'함께'여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함께'여서 나란히

걸을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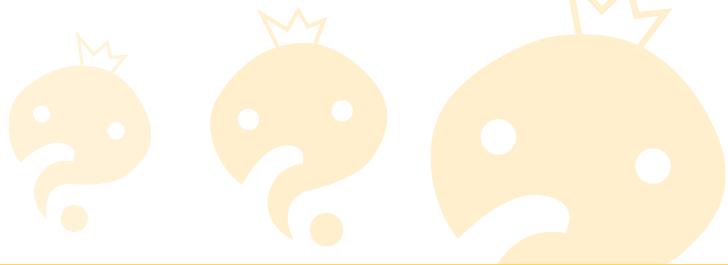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더

가치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행복공동체 '성촌의집'
별마을 가족으로서 사회복지사가 '함께' 합니다.

◆ 최새롬 사회복지사



이영우님의 무한!! 도전!!



평소 나는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작년에 IT교육이 있을 때 포토샵 교육을 신청하여 ITQ자격증 취득에 대해 도전을 했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포토샵을 공부하고 교육도 참여해서 자신감 있게 자격증 시험장에 들어서고 모니터를 본 순간 나는 굳어버렸다.

'어, 무야 이거! 처음 보는 회면인데?'

그렇다. 바로 내가 배웠던 포토샵과 시험장에 설치된 포토샵의 버전이 달랐다. 열심히 준비를 했건 만이 생소한 느낌과 눈앞에 보이는 화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시험에 떨어졌다. 그렇지만 올해 나는 다시 자격증에 도전한다. 올해 IT교육을 재신청하고 꾸준히 참여도 하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있다. 작년과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포토샵 버전으로도 연습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ITQ포토샵 자격증 꼭 따고 말겠다!'

"한지공예요? 한번 해보죠 무."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거리였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지공예라는 것도 만들기 중 하나라서 시작했다.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전문가용 커터칼도 필요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마음에 들었다. 직업훈련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공예인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매일 밤마다 만다라 문양과 전통문양 등을 찾아서 그것을 칼로 오리는 연습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제 한지공예품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한다.

"나중에 혼자 한지공예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요."

진지하게 이쪽으로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 한지공예인으로서 멋진 작품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나의 도전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윤진규님의 무한!! 도전!!



고영희님의 무한!! 도전!!

노곤해지는 오후, 모두가 낮잠을 자는 중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네요.

더운 날에도 웃는 얼굴로 무언가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니 한글 단어예요. 가위, 가방, 나비...오랜 시간동안 공들여서 쓴 흔적이 보이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별마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꿈이었다. 배움에 대한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마비가 왔다. 마비가 오기 전까지는 학교도 열심히 다녔다. 뛰지 못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었다. 막내 동생은 나를 위해 한글과 수학을 열심히 알려주었다. 동생한테 배운 것이 가장 많다. 계속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로는 혼자 공부를 했다.

성촌의집에 와서는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 책도 샀고, 공부를 도와주는 봉사자가 있다. 실력이 많이 들었다. 요즘 공부를 하다보면 막내 동생 생각이 참 많이 난다. 속상하게도 동생은 이제 볼 수 없지만 동생에게 자랑스러운 언니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할 것이다.



별마을 메모리즈



아~ 이렇게 더운 날은 시원한 명단자리에서 쉬면서 얘기하는게 최고지~ㅋ



8월 20일(토), 보호자 모임(2차)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세상의 하나 뿐인 커플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순이 언니!! 인순이 누나!!와 함께 즐거운 음악회~ 캐~~ 다같이 소리질러!!



오늘은 내가 닭볶음탕 요리사!!ㅋ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는 저처럼 조심히 해야합니다~^^



오늘은 더 이뻐질 수 있는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쓱쓱! 쓱쓱! 참 쉽죠잉~^^



슈~웃!! 볼은 나의 친구~ 독수리 슛을 받아라~ 뻥!!ㅋㅋ



약물교육. 쇳!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 우리 모두 집중해서 들어봐요~



하나! 둘! 하나! 둘!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원하시나요? 우리 함께 운동해요~^^

♥ 동그라미봉사단 | 2016년 07월 10일(일)

동그라미봉사단이 방문해 주셔서 멋진 난타공연을 보여주셨습니다.
동! 둉동! 둉! 둉동!~ 더불어 별마을 가족들도 신나게 북을 치며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부평지기 | 2016년 07월 30일(토)

부평지기와 함께 양평 세미원에 다녀왔습니다. 연꽃 등 다양한 식물을 보고 맛있는 연잎정식까지 먹었습니다. 싱그러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 거기에 부평지기와 함께 하여 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동행



♥ 한국집짓기운동본부 | 2016년 06월 03일(금)

한국집짓기운동본부에서 오셔서 별마을 가족들의 방 도배를 해주셔서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웃으시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신청

자원봉사 신청접수는 전화 · 홈페이지 · 방문 · VMS 등으로 해주세요~

- 처음 오신 봉사자는 '봉사활동신청서'를 꼭!!!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는 '활동일지'를 작성해야지만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 VMS(www.vms.or.kr)에 가입하셔야 활동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시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촌의집 소개와 봉사활동을 알려드립니다.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



학습
(수학, 영어 등)



운동
(배드민턴, 탁구 등)



IT교육
(컴퓨터, 인터넷 등)



여가활동
(춤, 노래 등)

* Painted by 유성우 가족



기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뚝뚝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고너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13번길 11

♥ 신성새마을금고

신성새마을금고에게 '성촌의집'이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촌의집 이용자분들께서는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시고, 해맑은 미소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업무 중 지치다가도 미소를띠게 되고, 직원들은 힘들 때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이용자)과의 추억은?

이용자분들이 항상 밝고 인사도 잘해주시입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은행에 와서 저희에게 너무 순수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은 항상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 하고 싶은 말은?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름 날 더위 조심하시고 조만간 여행을 가신다고 하는데 좋은 여행 좋은 추억 많이 담아오시고~ 저희에게 또 이야기해주세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13번길 8

♥ ANYDAY(애니데이)

ANYDAY(애니데이)에게 '성촌의집' 이란?

이웃사촌^^

가까이에서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용자, 직원)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 고마운 사람들!!!^^

기억에 남는 성촌의집(이용자)과의 추억은?

마을 어디에서든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라고요.^^\n

마지막으로 성촌의집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더운 날에도 함께 어울리며 삶을 나누는 이용자들과 직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을 만들어가는 웃음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습관~ 행복한 나눔^^

피겨선수 김연아가 필리핀 구호기금으로 10만달러를 기부하고 배우 하지원이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1천권의 책을 기증하였으며 배우 한효주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자막해설 녹음을 하는 등 유명인들의 나눔 소식이 연일화제입니다.

우리들도 유명인들처럼 나눔 실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입었던 옷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빨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깨끗한 옷과 함께 보관하는 것도 애매하고... 성촌의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성촌의집 가족들이 옷걸이를 통해 옷을 잘 관리하여 패션스타일을 지켜주세요! 외투를 걸 수 있는 스탠딩 옷걸이를 찾습니다.

물품후원 시 해당되는 가격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연말에는 후원물품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똑똑한 재테크 누려보세요~~



튼튼하고 멋진 스탠드 옷걸이 12대!!

별마을 이웃사촌에게 드리는 감사의 인사



그 동안 별마을(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봉사자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상정중 우리들 봉사단(신미옥 회장) : 노력봉사 및 종식봉사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어머니와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단으로 성촌의집의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봉사와 요리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마을 가족들이 가정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전골냄비를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사랑나눔봉사단(이종서 회장) : 석식봉사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별마을 가족에게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해주시는 사랑나눔봉사단에게 이렇게 글을 통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 동그라미봉사단(오현주 회장)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별마을 가족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별마을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것을 하면 좋아할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태양봉사단(이영식 회장) : 중식봉사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별마을 가족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고민하고 가족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라고 하시는 태양봉사단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태양봉사단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부평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김병락 회장) : 성촌의집 시설관리 지원

- 부평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별마을 시설물의 문제가 생기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관 및 생활관 시설물 점검 및 수리, 텃밭 관리 및 잡초 제거 등 못하는 것 빼곤 무엇이든 해결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평체육 부평지기(김철 부단장)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 분기별 1회 방문, 내부에서는 노래자랑, 외부에서는 영화관람,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별마을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확 줄어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7월30일 나들이(양평 세미원) 때 점심으로 먹은 연잎 밥은 너무 맛있어 잊을 수가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회사 DK도시개발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 DK도시개발 봉사단은 주로 원내 노력봉사 및 이용자와 함께하는 산책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주식회사 DK도시개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한국집짓기운동본부(김문규 본부장)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 외부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별마을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시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가족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도배를 해주셔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별마을과 함께 해주신 모든 단체 및 개인봉사자분들을 언급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은 인연 이어갈 수 있도록 별마을도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자 명단 (2016.06.01-2016.08.31)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권영수, 고종원, 김경진, 김덕준(건강길약국), 김수진, 김현보, 박미정, 박점숙, 신광수, 신미옥, 신진자, 유계월, 유은율, 유은찬, 유암식, 윤창호, 이미복, 이향란, 조영규, 조성란

단체 : 교촌에프앤비, 인천중앙교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아프로파이낸셜 구월지점, 익산유압, 차우차이, 푸드마스

CMS : 김인수, 김현수, 김현경, 변문수, 소형순, 이은주(부평우체국), 이은주(성촌의집), 이구형, 윤유석, 정찬식, 정민호, 정웅택, 조광매, 조근태, 조성숙, 조성욱, 정금자

+ 지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 유정운, 이은주, 임미정

+ 후원물품

개인 : 이향란(사무용품류), 인화회(식기세트), 김창석(쌀), 김문규(속옷 및 인형)

단체 : 사랑나눔봉사단(식식 식재료), 시흥현대모터스(차량수리 · 점검), 크롬(빵류), 까레몽케이크삼산점(케이크), 파리바게뜨간석오거리역점(빵류), 한국세탁업중앙회인천지부(의복수선), 한국희망집짓기태양봉사단(중식 식재료), 협회어린이ース(해어디자인)

+ 후원모금함 현황

-부평우체국(동암우체국, 부평6동우체국, 부평공단우체국, 부평대로우체국, 부평현대아파트우체국, 북인천우체국, 산곡2동우체국, 인천갈산동우체국, 인천부개동우체국, 인천삼산동우체국)

-24시콩나물국밥, 건강길약국, 라성약국, 벤엘약국, 부성해물탕, 석바위어린이책, 시흥현대모터스, 이천쌀밥설악추어탕, 차우차이, 혼예어뉴스, 촌집보쌈, 동암중앙치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보고 (2016.06.01.-08.31.)

세입	세출		
지정후원금	9,731,100	여비	9,400
비지정후원	6,166,870	수용비및수수료	1,036,210
접수입	17,521	공공요금	71,110
전년도이월금	27,372,750	제세공과금	940,000
		기타후생경비	311,410
		기타운영비	1,666,600
		시설장비유지비	20,000
		사회실리재활사업비	1,137,440
		영양관리사업비	648,000
		지역자원연계사업비	4,300,000
		인권사업비	750,000
		이월금	3,239,8071
합계	43,288,241	합계	43,288,241

자원봉사자 명단 (2016.06.01-2016.08.31)

개인

김민주, 김나형, 강세미, 강다솔, 김명숙, 허예진, 윤선희, 안교현, 임경민, 조현민

단체

사랑나눔봉사단: 석식봉사

이종서 단장, 김연숙, 진학일, 모윤숙, 정연화, 이빛나, 이다민, 윤하늘, 김지현, 박남숙, 홍경순, 이승리, 이판기, 서금자, 오경택, 김순옥, 김민상, 노현우

아이디나눔봉사단: 시설 실내/외 소독봉사

허진, 심동민, 이충우, 정희현, 이다영, 이민영, 최세진, 최세은, 최효준, 선준철, 최유빈, 김동현, 김향중, 박선미, 박가희, 안연숙

상정중 우리들봉사단: 음식만들기 ·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신미옥 단장, 박상은, 안형진, 정수연, 김이수, 김효주, 김자수, 김지우, 강건주, 나승진, 이은서, 이지원, 이윤진, 윤수현, 조영순, 최제옥, 정미자, 이인숙, 김영재, 임정연, 박미영, 유나경, 김형진, 김민교, 임자영, 최영원, 최화진, 김호연, 김경춘

동그라미봉사단: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오헌주 회장, 김오분, 임충휴, 정나나, 이재웅, 김숙영, 나태현, 이해원, 김인선, 최계한, 장경미, 문희주

부평통우회

최명애, 임영숙, 지인애, 박규희, 윤경옥, 윤소은, 성선희, 이한복, 허정애

태양봉사단: 중식봉사

이명식 회장, 이영호, 김춘숙, 김정은, 황세동, 김영분, 나영분, 김점엽, 김미정, 신연섭

부평지기: 이용자프로그램 지원

김철 부단장, 이수일, 정연호, 박종화, 황병호, 조재윤, 김지훈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제되는 제도

◀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증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헬체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BUS/버스

좌석버스 : 동암북부역 하자 103번, 악사사 입구 하자 111번

마을버스 : 531, 533, 535-1, 536, 537, 538(남부역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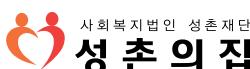
시내버스 : 2, 30,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입구, 보훈회관 하차)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남부역 1번출구 하차

인천선 : 간석오거리 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 하차



별마을이야기 2016년 세 번째 호 (통권16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권소진, 김기철, 유성우,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